

대미투자 수익배분 구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9.10. 한겨레 「미국, 한국 2천억달러 대미투자 ‘최종 안전판’ 깬다」 제하 기사에서,
 - “미, 지난해 한미 양해각서 합의 였고 ‘프로젝트별 손익분배’ 요구·관철. 한국, 일부 사업 원금 회수 어려울 수도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 - 또한, “정부도 이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대형원전 건설이나 알래스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대미투자 수익배분 구조 등은 韓·美 간 협의중인 사항으로,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한미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 송지현 (044-203-5170)
		담당자	사무관 유영석 (yooyseok@korea.kr)
	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	책임자	과 장 유예림 (044-215-4950)
		담당자	사무관 안경우 (gomee@korea.kr)